

이라크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1. 6.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11
IV. 국제신인도	17
V. 종합의견	20

I. 일반개황

면적	442천 km ²	G D P	822억 달러 (2010년)
인구	32백만 명 (2010년)	1 인 당 GDP	2,564달러 (2010년)
정치체제	내각책임제	통화단위	Iraqi Dinar (ID)
대외정책	친미노선	환율(달러당)	1,170 (2010년 평균)

- 이라크는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시리아와 접경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2배에 달하는 국토와 3,2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중동 이슬람 국가임.
- 세계 4위의 원유(확인매장량 1,150억 배럴) 및 12위의 천연가스(112조 ft³) 를 보유한 자원부국이며 미탐사 유전지역이 많아 자원개발 면에서 커다란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 2003년 이라크전쟁 이후 재건 계획을 수립하고 세계 각국의 지원 등을 통해 경제 회복을 추진하여 왔으나, 빈번한 테러와 저항 활동으로 인한 치안 불안과 외국인 투자 부족 등으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 2010년 3월 총선 이후 9개월 간 국정공백 상태를 거쳐, 11월에 이라키야, 법치국가연합, 이라크국민연맹, 쿠르드 연맹이 권력배분에 합의하고 12월에 말리키 총리가 제출한 내각 명단이 의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마침내 신정부가 출범하였음.
- 그러나 이해관계와 성향이 상이한 여러 정치집단이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어 정치·사회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는 연정이 붕괴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어 정국 불안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 또한 신정부 출범 이후에도 폭탄 테러 공격이 빈발하고 있고 반정부 시위에 따른 치안 불안도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011년 말 미군 완전철수가 예정되어 있어 치안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 경제

□ 석유산업이 경제 재건의 동력

- 석유산업이 GDP의 60%, 수출의 98%, 재정수입의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경제성장은 국제유가 등락과 원유 생산량 증감에 크게 좌우되고 있음.
- 또한 원유의 생산능력 확대 및 수출 극대화 등 석유산업의 성장 없이는 인프라 구축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 재건도 불가능함.

□ 불안한 치안 상황이 경제성장을 억제

- 2003년에 이라크전쟁 발발에 따른 원유 생산량 감소와 체제 붕괴에 따른 사회 혼란의 여파로 경제는 -33.1%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2004년에는 재건 복구 수요 및 투자 증가로 23%의 급성장세를 시현하였음.
- 2005년 이후 정정 불안으로 많은 국민들이 시리아, 요르단 등 주변 국가로 이주하면서 내수가 감소하고 원유 생산량도 축소되어 2007년에는 경제성장률이 1.5%에 그쳤음.
- 2008년에는 치안 상황이 개선되어 경제가 활기를 되찾고 원유 생산량도 증가 하면서 경제성장률은 9.5%로 급등하였으나, 2009년에는 세계 경기침체 및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성장률이 4.2%로 전년 대비 둔화되었음.

<표 1> 주요 국내 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e
경제 성장률	6.2	1.5	9.5	4.2	0.8
재정수지 / GDP	15.5	12.4	-1.2	-21.8	-10.8
소비자물가상승률	53.2	30.8	2.7	-2.8	5.1

자료: IMF.

- 2010년에는 이라크 북부 원유 파이프라인의 폭탄 테러로 인한 원유수출 중단과 정치 불안으로 원유의 생산·수출이 예상보다 저조하여 경제성장률은 0.8%에 그친 것으로 추정됨.

- 원유 수출량은 정부 전망치인 210만 b/d를 하회한 185만 b/d로 추정됨.

- 그러나 2011년에는 외국 석유회사의 신규 유전개발이 본격화되고 국제유가 상승, 원유 생산량 증가, 국내 소비수요 증대 등에 힘입어 9% 중반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2011년 원유 생산량과 수출량은 각각 270만 b/d, 210만 b/d로 전망됨. 실제로 4월에는 214만 b/d의 원유를 수출하여 73억 달러의 원유수입을 기록함.

□ 소비자물가는 상승세로 전환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생필품 부족에 따른 상품가격 급등, 수입물가 상승의 영향으로 2006년에는 53.2%로 급등하였음. 2007년에는 중앙은행이 디나르화 절상과 이자율 인상조치 등의 긴축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급등세가 전년 대비 둔화되기는 하였으나, 30.8%의 상승률을 기록하여 높은 물가상승세가 지속되었음.

- 2008년에는 디나르화의 통화가치 상승 지속, 생필품 수급 개선, 국제 상품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7%로 대폭 둔화되었고, 2009년에는 연료 및 식품가격 하락세 등에 따라 -2.8%를 기록하였음.

- 그러나 2010년에는 세계경기 회복 및 국제 상품가격 상승에 따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은 5.1%의 상승세로 전환된 것으로 추정되며, 2011년에도 상승세가 이어져 5%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재정수지 적자 지속

- 2004년 재정수지는 원유 생산량 감소로 인한 재정수입 축소와 전후 복구 사업으로 인한 지출 증가로 GDP 대비 40%가 넘는 적자를 기록하기도 하였음.

- 그러나 2005년 이후 재정수지는 유가 상승 및 원유 생산량 증가로 재정수입이 증가하고 치안불안에 따른 예산집행 저조 등으로 흑자를 유지하였음.

- 2008년에는 원유수출 증가로 인한 재정수입 증대에도 불구하고 임금인상, 보조금 지급 확대 등에 따른 정부지출 증가로 재정수지는 GDP 대비 1.2%의 적자로 전환되었음.
- 2009년에는 유가 하락에 따른 재정수입의 감소와 정부의 확대 재정정책에 따른 지출 증가로 재정 적자 폭이 GDP 대비 21.8%로 크게 확대되었음. 2010년에도 치안강화, 원유, 수자원, 전력 부문에 대한 정부지출 증가로 적자 규모는 GDP 대비 10% 후반대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11년에는 미군 철수에 따른 치안 강화, 사회보장제도 확대 등 정부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원유수출 확대에 힘입어 재정수지 적자규모는 GDP 대비 4.4%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 향후에도 사회기반시설 재건, 공공부문 고용 확대 등을 위한 정부지출 증가로 재정수지 적자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국제사회의 제재 조치 및 전쟁 등으로 인한 기반시설 부족

- 1970년대까지 이라크는 중동에서 기반시설이 가장 발달된 국가 중 하나였으나, 수십 년 간의 투자 부족 및 1990년 쿠웨이트 침공에 따른 국제 제재, 전쟁으로 인한 각종 시설 파괴 등으로 기반시설이 급속히 악화되었음.
- 전후 복구 사업 및 정부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한 정국과 종파간의 갈등으로 인한 테러 등으로 기반시설 파괴는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경제회복에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

- 석유산업이 GDP의 60%, 수출의 98%, 재정수입의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석유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아 국제유가 등락과 원유 생산량 증감이 국가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1990년 걸프전 이전까지 제조업 육성에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었으나 이후 UN 경제제재로 타격을 입었고, 2003년 이라크전쟁 이후 산업시설이 파괴되어 현재 석유산업과 농업을 제외한 산업은 크게 위축된 상황임.
- 전후 계속되는 보복성 테러 및 저항 활동으로 인하여 각종 기반시설의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제조업 등 기타 산업의 회복이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부분의 소비재와 자본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등 취약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음.

나. 성장 잠재력

□ 천연자원이 풍부한 자원 부국

- 이라크의 원유매장량은 사우디아라비아, 베네수엘라, 이란에 이어 세계 4위인 1,150억 배럴(2009년 말 기준)로 석유산업은 재정 및 외화수입원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최대 산업이며, 경제성장의 주 동력원임.
 - 원유는 바스라(Basrah)를 중심으로 한 동남부 지역과 북부 키르쿠크(Kirkuk) 지역에 주로 매장되어 있으며, 중부의 바그다드 인근, 북부 모술(Mosul) 지역, 쿠르드 지방정부 관할지역에도 일부가 산재해 있음.
 - 9개의 초대형 유전(확인매장량 50억 배럴 이상)과 22개의 대형 유전(10억 배럴 이상)이 있음. 주요 유전은 동남부의 웨스트 쿠르나 유전(West Qurna, 216억 배럴), 루마일라 유전(170억 배럴), 마지눈 유전(Majnoon, 125억 배럴), 주바이르 유전(Zubair, 40억 배럴)과 키르쿠크 지역의 키르쿠크 유전(100억 배럴)임.
 - * 2010년 1월 포브스가 선정한 미래의 세계 10대 유전에서 이라크의 웨스트 쿠르나 유전, 루마일라 유전, 마지눈 유전이 각각 2위, 3위, 4위를 차지하였고, 10대 유전 중 3개 유전을 보유한 국가는 이라크가 유일함.
- 막대한 확인매장량 이외에도 서부와 남부 사막지대를 중심으로 최대 2,000억 배럴의 잠재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현재 전체 유전의 약 10% 정도만 탐사·개발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2010년 10월에 슈리스타니(Hussein al-Shahristani) 석유부 장관은 이라크의 원유 매장량이 1,431억 배럴로 기존에 알려진 1,150억 배럴보다 약 25% 많다고 발표하였음. 이는 현재의 기술수준으로 채굴이 가능한 매장량을 반영한 것으로 국내 유전지역의 매장량을 합산한 것이라고 밝힘.
- * 원유매장량은 1,150억 배럴로 알려져 왔으며, 후세인 통치기간에 신규 원유 탐사,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확인매장량에 대한 수정작업이 없었음.
- 또한 이라크가 2009년 10개 유전에 대한 입찰을 성공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기존 유전의 생산량 증가와 함께 신규 유전개발로 인해 원유 생산량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2009년에 2차례 실시된 유전입찰은 1972년 이라크 정부의 석유산업 국유화 이후 37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세계의 관심과 주목을 받았음.
- 1, 2차 입찰로 10개 유전에 대한 외국 석유기업의 개발 참여가 확정되어 산유량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단기적으로는 외국 석유회사들의 유전 개발 및 인프라 구축 등으로 원유 생산량이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이나, 중장기적으로 원유생산량은 2017년까지 7백만 b/d, 이후에는 10백만 b/d 이상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 이라크 정부가 기대하고 있는 2017년 원유생산능력 12백만 b/d(생산량 기준 세계 2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임.
- 이라크는 천연가스 매장량도 세계 12위인 112조 ft^3 이고, 인산염, 황 등의 비석유 천연자원과 티그리스 강 및 유프라테스 강의 풍부한 수자원도 보유하고 있음.

□ 경제 재건을 위한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 추진

- 막대한 규모의 이라크 재건시장에 대한 세계 각국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최근 신도시 건설, 발전설비 확충, 철도 개선, 공항 건설 등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 MEED(Middle East Economic Digest)에 따르면 2011년 5월 17일 현재 정부가 진행 또는 계획 중인 총 프로젝트 금액은 4,069억 달러에 달함.

<표 2> 주요 프로젝트 진행 현황

단위: 억 달러

프로젝트명	사업금액	진행단계
철도 개선	600	계획 중
공항 건설 등 항공 인프라 구축	600	계획 중
원유·가스 수송관 확장	500	컨설턴트 계약 체결 예정
Madinat Rashid 복합단지 건설	300	마스터플랜 승인 중
정유공장 건설	230	F/S 진행 중
쿠르드 지역 도로 개선	100	마스터플랜 수립 중
해수공급시설 건설	100	입찰조건 변경 검토 중
바그다드 인근 신도시 건설	73	한화건설과 계약 체결 완료
발전설비 확충	63	시공사와 계약체결 완료

자료: MEED.

- 또한 국가투자위원회(National Investment Commission: NIC)는 2010년 3월에 주택, 운송, 농업, 에너지 등 7개 분야를 중심으로 총 투자규모 1,500억 달러의 중장기(2010~25년)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함.

<표 3> NIC의 2010~25년 인프라 투자 계획

단위: 개, 억 달러

분 야	프로젝트 수	투자금액
농 업	48	180
에너지	12	45
보 건	31	미정
주 택	100만 호	500
통 신	6	6
관 광	151	미정
운 송	24	200

자료: NIC.

- 한편, NIC의 중장기 인프라 투자계획과는 별도로 기획부(Ministry of Planning)는 2010년 7월에 경제사회 개발을 위한 총 투자규모 1,860억 달러의 국가개발5개년계획(2010~14년)을 발표한 바 있음.

- 부문별 투자배분비율은 석유·전력산업 등 30%, 건설·서비스산업 17%, 쿠르드 지역 개발 17%, 지방 개발 12.5%, 농업 9.5%, 운송·통신산업 9%, 교육 5%임.
- 이와 같은 정부의 대규모 재건 프로젝트 추진에 힘입어 2011년 들어 우리 기업들의 이라크 해외건설 공사 수주가 이어지고 있음.
- 2010년 말 누계 기준 우리나라의 이라크 건설 공사 수주액은 총 78억 달러로 전 세계 수주총액 4,208억 달러의 1.9%를 차지하였고, 2010년 수주액은 1.4억 달러에 불과하였음.
- 그러나 2011년 2월에 현대엔지니어링이 가스터빈 발전소 건설사업(2.2억 달러)을 수주한 것을 시작으로 5월에는 STX 중공업이 디젤발전 플랜트 건설사업(30억 달러)을, 한화건설이 신도시 건설사업(72.5억 달러, 우리나라 해외건설공사 사상 최대 규모)을 잇달아 수주하였음.

다. 정책성과

□ 자유 시장경제원리 확산 및 규제 철폐

- 2003년 종전 후 출범한 이라크 정부는 후세인 정권에 의한 30년 간의 사회주의 경제정책을 철폐하고, 관련 법규를 대폭 개편하여 자유 시장 경제를 채택하였음.
- 이라크의 신 경제정책은 USAID의 ‘경제회복 및 개혁계획’(Economic Recovery and Reform Plan)에 의거하여 컨설팅 기업인 베어링포인트(Bearing Point)가 주도했으며, 중앙은행, 재무부, 무역부, 상공부와 더불어 무역, 투자, 민영화 등에 관한 전반적인 조직체계, 법령의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정부는 기업법, 은행법, 증권법, 외국인 투자법, 중앙은행 관리법 등 자유 시장경제 전환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혁을 시행하였으며, 단일 관세율 제정 및 관세율 인하, 누진 소득세 도입, 균형예산 편성, 국채 발행 등 새로운 경제체제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시행하였음.
- 금융·통화 부문: 신권 발행, 변동 환율제 정착, 이자율 자유화, 중앙은행 독립 등의 정책 시행

- 석유 부문: 3개 국영 석유공사 통합 진행
- 통신 부문: 위성방송 허용, 휴대전화 서비스 개시, 유선 전화망 정비 시행

□ 고용창출 노력 강화

- 정부는 2007년 시멘트, 섬유, 제약, 석유화학 등 분야의 21개 국영기업을 선정하여 국영은행인 Rasheed은행과 Rafidain은행*의 자금지원을 통하여 정상 운영을 도모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있음.

* 이라크에는 Rasheed와 Rafidain의 2개 국영은행이 있으며, 이들이 국내 총 은행예금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또한 2010년 7월에 수립된 국가개발5개년계획(2010~14년)은 3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현재 15%에 달하는 실업률을 절반 수준으로 축소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음.

□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

- 2006년 12월 이라크는 신 투자법을 제정하여 내·외국인 차별을 철폐하고 외국인의 100% 단독투자를 허용하는 등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음.

- 2007년 11월에는 국가기관인 국가투자위원회를 설립하고 주정부별로 투자위원회를 설치하여 투자관련 조직을 정비하였고 2009년 11월에는 주택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토지 소유를 허가하는 등 투자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음.

- 이라크는 계속되는 테러 및 저항 활동으로 인한 치안 및 정정 불안으로 아직 투자 위험도가 매우 높지만, 최근 외국인 투자유치에 유리한 석유법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미군 철수 후 이라크의 독립적인 재건 및 투자 활동이 예상됨에 따라 세계 각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이라크는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10개 유전지역에 대한 입찰을 실시한 바 있으며, 2012년 1월에 12개 유전지역에 대한 추가 입찰을 계획하고 있는 등 원유 및 인프라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3. 대외거래

□ 경상수지 적자 지속

- 원유 수출이 총 수출의 98%를 차지하는 등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국제유가 등락과 원유 생산량 증감이 상품경상수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2006년부터 원유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상품·경상수지는 2008년까지 흑자를 지속하였음.
- 그러나 2009년에는 세계 경기침체 및 국제유가 하락으로 수출이 전년 대비 38%나 감소하면서 상품수지는 적자로 전환되었으며, 경상수지 또한 174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음.
- 2010년에는 국제유가 상승에 힘입어 상품수지는 50억 달러대의 흑자로 전환된 것으로 추정되나, 경상수지는 서비스수지(-69억 달러) 및 소득수지(-43억 달러) 적자의 영향으로 전년에 이어 51억 달러 규모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11년에는 국제유가 상승 및 원유 생산량 증가에 힘입어 상품수지 흑자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경상수지는 적자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표 4>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억 달러,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e
경 상 수 지	85	71	110	-174	-51
경 상 수 지 / GDP	19.0	12.5	12.8	-26.6	-6.2
상 품 수 지	103	132	212	-74	56
수 출	299	378	620	384	508
수 입	196	246	408	458	452
외 환 보 유 액	200	315	502	443	506
총 외 채 잔 액	1,053	995	956	899	886
총외채잔액/GDP	212.8	174.6	110.5	137.9	107.8
D S R	5.3	1.8	1.5	3.7	4.6

자료: IMF.

□ 외환보유액 증가 추세, 외채감소 등 외채상황 개선

- 고유가에 따른 원유수출 증가로 외환보유액은 2003년 종전 이후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음. 2010년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500억 달러 수준(수입액의 8.2개월 분)으로서, IMF는 이를 안정적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음.
- 2004년 11월 파리클럽과 쿠웨이트 등이 이라크 채무 중 80%를 3년에 걸쳐 탕감해 주기로 결정하는 등 국제 사회의 외채탕감과 최근 수년간 GDP의 지속적인 증대로 인해 GDP 대비 총 외채잔액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왔으며, 2010년 말 기준 107.8%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안정

□ 2010년 3월 총선 실시

- 2010년 3월 7일에 이라크 전쟁 이후 두 번째로 실시된 총선은 미국의 개입 없이 단독으로 치러졌으며, 수니파가 불참한 2005년 선거와는 달리 모든 종파가 참여하였음.
- 이야드 알라위(Iyad Allawi) 전 총리가 이끄는 시아-수니파 정당 연맹체 이라키야(Iraqiya)가 325석 중 91석을 차지하여 1위를 기록하였음.
- 말리키(Nouri al-Maliki) 총리의 법치국가연합(The State of Law Coalition)은 89석, 반미·친이란 성향의 시아파 연합체인 이라크국민연맹(Iraqi National Alliance)은 70석, 쿠르드연맹(Kurdish Alliance)은 43석을 각각 확보하였음.

□ 총선 후 정국혼란 지속

- 이라키야와 법치국가연합은 획득한 의석 수가 공히 과반수에 크게 미달함에 따라 이라크국민연맹, 쿠르드연맹 등과 연합을 모색하였으나, 정당 간 성향과 이해관계가 상이하여 연정 구성에 어려움을 겪었음.

- 이라크 헌법 76조에 의하면 총 의석의 절반 이상을 획득한 정당연합체가 총리 지명권과 내각 구성권을 갖게 되며, 총리 지명자는 국회 총의석의 1/2 이상의 승인을 얻어야 총리로 인준됨.
- 또한 말리키 총리 진영이 개표과정에서 광범위한 부정이 저질러졌다면 전국적 재검표를 요구하였고, 바트당에 참여한 6명의 당선자에 대한 당선 무효가 논의되는 등 선거 후유증에 시달려 왔음.
- 이라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8석이 배정된 바그다드 지역에 대한 재검표를 실시하여, 선거 부정행위는 없었고 기존 이라키야와 법치국가연합의 의석 수에 변동이 없다고 5월 16일에 발표하였음.
- 이러한 정국 혼란과 국정 공백은 정파-종파 간 폭력과 정부기관에 대한 테러로 이어져 치안상황을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함.
- 폭탄 테러 등으로 인한 민간인 사상자 수는 2010년 5월에 275명, 6월에 204명, 7월에 396명으로 집계됨. 또한 2010년 3월에 이라크 재무부, 6월에 이라크 중앙은행과 상업은행들에 대한 폭탄 테러 공격이 있었음.

□ 2010년 9월, 이라크국민연맹이 말리키 총리 지지 선언

- 정국은 2010년 9월에 이라크국민연맹 소속 반미 강경 시아파인 무크타다 알사드르(Moqtada al-Sadr)의 사드르 정파(Sadrist Trend)가 말리키 총리 지지를 선언하면서 신정부 구성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게 됨.
- 이라크국민연맹은 반외세를 주장하는 이라크이슬람최고회의와 반미 강경 정파인 사드르 정파가 양대 축을 이루는 정당 연합으로, 사드르 정파는 이번 총선에서 40석을 획득하였음.
- 이 지지 선언에는 이라크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이란의 힘이 크게 작용하였고, 사드르 정파 지도자인 무크타다 알사드르는 지지의 대가로 치안 관련 요직(내무부 또는 국방부 장관)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짐.
- 이라크국민연맹은 원래 자체적으로 압둘 마흐디(Adil Abdel-Mahdi) 당시 부통령을 신임 총리 후보로 지명했지만 사드르 정파의 입장 변화로 결국 말리키 총리의 후보 추대에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말리키 총리를 신임 총리로 추대하고자 하는 거대 시아파 블록이 형성되면서 말리키 총리는 연임을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음.

- 법치국가연합, 이라크국민연맹 등이 연대한 시아파 정치블록 형성으로 말리키 총리 측은 의회 325석 중 과반(163석)에 가까운 161석을 확보하게 됨.
- 법치국가연합은 총선에서 이라키야에 석패했지만 시아파 정파들과 정치블록 결성에 합의한 뒤 대법원으로부터 "최대 의석수를 보유한 정치블록이 차기 총리 후보를 지명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음.

□ 2010년 11월, 신정부 구성을 위한 권력분점 합의

- 2010년 11월 8일에 쿠르드 자치정부 수도인 아르빌에서 이라키야와 법치국가연합 등 주요 정당이 참석한 가운데 권력분점을 위한 협상이 개최됨.
- 그 결과 이라키야, 법치국가연합, 쿠르드연맹 등이 권력분점에 합의함에 따라 2010년 11월 11일에 의회는 국회의장, 대통령을 차례로 선출하고 이후 최다수 의석 연합체에 의해 총리가 지명됨.
 - 국회의장으로는 이라키야의 누자이피(Osama Nujaiifi) 의원, 대통령은 쿠르드연맹의 탈라바니(Jalal Talabani) 현 대통령이 선출되었고, 총리에는 말리키 총리가 지명되었으며, 말리키 총리는 헌법에 따라 30일 내에 내각을 구성해야 하는 임무를 부여받음.
 - 총선에서 1위를 차지한 이라키야는 정당 간 연합 등을 통해 차기 총리직을 차지하고자 하였으나, 말리키 총리의 연임을 지지하는 거대 시아파 블록이 형성됨에 따라 정치적 입지가 크게 축소됨. 이에 따라 총리직을 법치국가연합에 양보하는 대신 국회의장직을 차지하는데 만족해야 했음.

□ 2011년 12월, 신정부 출범

- 2010년 11월에 주요 정당 간 권력배분 합의에 따라 30여 명의 장관으로 구성된 새 내각은 시아파, 수니파, 쿠르드족 등 주요 종파와 정파 모두가 참여하는 형식의 내각임.
- 연임에 성공한 말리키 총리가 2010년 12월에 제출한 새 내각 명단이 의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마침내 신정부가 출범하였음.
 - 시아파는 말리키 총리를 비롯하여 부통령(부통령 3인 중 1명), 석유장관 직을 차지하였고, 수니파는 누자이피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부통령, 재무장관 직을 획득하였음. 또한 쿠르드족은 탈라바니 대통령을 비롯하여 부통령, 외교장관 직을 차지하는 성과를 거둠.

- 한편, 이라키야의 알라위 전 총리는 정부의 안보·외교정책을 견제할 수 있는 국가전략정책위원회 위원장(National Council for Strategic Policies Chairman)을 맡음.
- 말리키 총리는 9개월 간의 국정공백을 딛고 신정부 출범에는 성공하였으나, 상이한 이해관계와 성향을 가진 정치집단이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어 정치·사회 상황에 따라 신정부를 이탈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음.
- 실제로 2011년 3월에 알라위 전 총리가 국가전략정책위원회 위원장직에서 자진 하차했고, 5월에는 이라크이슬람최고회의를 대표해 연립정부에 참여했던 압둘 마흐디 부통령이 사임하자 일각에서는 이를 연립정권의 분열 조짐으로 분석하고 있음.
- 또한 일부 정치그룹이 조만간 야당세력에 합류할 것이라는 소문이 떠도는 등 정국 불안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과거에 비해 다소 개선되었으나, 치안 불안 양상 지속

- 2003년 이라크전쟁 종료 후에도 테러 및 저항활동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바그다드의 치안 상황이 특히 심각한 수준임. 이라크는 국가위협도가 가장 높은 국가로 분류되며, 외국 기업인에 대한 빈번한 납치활동으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크게 위축되어 왔음.
- 원유의 채굴·정제설비 및 파이프라인, 전력, 상하수도, 도로, 교통 등 기간산업 인프라도 크게 손실되어 민생 여건이 크게 악화되었음.
- 수니파와 시아파 간 보복성 테러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006년 말리키 정부 출범 이후 사회 교란을 노린 저항 세력들의 공격이 격화되고, 정파간 이해관계에 따른 충돌이 심화되어 왔음.
- 또한 시리아 등에서 유입된 알카에다의 테러활동 등이 격화되면서 2006년 말까지 치안 상황은 악화 추세였으나, 2007년 미군 2만 명 증파,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한 미군의 치안 안정화 노력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서 2007년 하반기부터 테러 건수와 사망자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등 치안 상황이 점차 개선되고 있음.

- 그러나 2011년 3월 북부 티크리트(Tikrit)의 폭탄 테러(58명 사망), 5월 키르쿠크의 연쇄 폭탄 공격(25명 사망), 수도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한 10여 차례의 연쇄 폭탄 테러(17명 사망) 등 테러가 여전히 빈발하여 치안 불안은 지속되고 있음.

□ 반정부 시위사태 발생

- 2011년 2월 말에 실업 감소, 전력공급 확대, 상수도 개선 등의 생활 수준 향상과 치안 개선 및 부정부패 척결을 촉구하는 수천 명의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였음.
- 이에 정부는 2011년 6월까지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공공 서비스 문제의 해결을 약속하였고 2011년 예산 편성에서 전기 공급 확대와 서민용 주택건설을 위해 총 257억 달러를 배정하였음.
- 또한 F-16 전투기 구매 예산을 삭감하고 설탕 및 밀 구매를 통한 서민용 식량 배급을 확대하는 경제 유화책 등을 통해 반정부 시위는 어느 정도 진정된 상태임.
- 그러나 향후 정부가 부정부패 척결, 생활수준 개선 등 국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반정부 시위가 재발할 가능성이 크며, 이럴 경우 연립정권을 불안하게 유지하고 있는 현 정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함과 동시에 치안불안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됨.

□ 미군 철수를 앞두고 치안 불안 심화 가능성 잠재

- 2009년 6월에 미군은 이라크 도심에서 지방으로 철수하였으며, 미-이라크 안보협정에 따라 이라크 주둔 미군 병력은 2010년 8월 말 6만 5천 명에서 5만 명 수준으로 감축되었고 나머지 병력도 2011년까지 완전 철군할 계획임.
- 2009년 미군의 도심 철수 이후 6월부터 테러가 급증하기 시작하여 2009년 8월 바그다드 시내에서 700명의 사상자를 낸 대형 폭탄테러가 발생하였음. 또한 2011년 4월 한달 간 미군 사망자는 11명으로 이라크전쟁 이후 최다를 기록하는 등 미군 철수를 앞두고 미군기지 등에 대한 공격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2011년 5월에 말리키 총리가 각 정파가 원한다면 미국에 주둔 연장을 요청하겠다고 하자 반미 강경 시아파 소속 마흐디 민병대(Mahdi Army)는 미군 주둔이 연장되면 무장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히는 등 미군 철수를 앞두고 치안 불안이 심화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음.

□ 정파·종파 간 첨예한 대립이 재발할 가능성 잠재

- 시아파와 수니파는 이라크에서 정치 이념과 지역 기반을 바탕으로 독자적 정파를 형성하고 있고, 북부 쿠르드지역에는 쿠르드 지방정부가 상당한 자치권을 갖고 독자세력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들은 연방제, 석유법 등의 정치현안을 두고 이해관계에 따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

이라크의 종파·정파 간 갈등

이라크는 종파·정파 간 이해관계를 둘러싼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 정치·사회 안정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어 왔음.

양대 종파인 수니파와 시아파는 상이한 정치 이념과 지역 기반을 바탕으로 독자 세력을 형성하고 있음. 수니파는 바그다드 북서쪽을 기반으로 총인구의 20~25%를 차지하는 소수파임에도 2003년 후세인 정권 붕괴 전까지 장기간 집권하여왔음. 그러나 이후 2006년 시아파 중심의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집권층에서 밀려나자 신정부에 대한 불만이 팽배하고 반미 감정이 강하여 테러 활동을 빈번히 전개하여 왔음.

시아파는 총인구의 60%를 차지하나 후세인 정권 하에서는 집권세력에서 배제되었음. 그러나 2005년 12월 총선으로 말리키 총리를 비롯하여 내각의 요직을 차지하면서 집권층을 형성하였음. 이번 총선에서 의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데는 실패하였으나, 거대 시아파 블록 형성에 성공하면서 정권을 유지하게 되었음.

한편, 북동쪽의 도후크(Dohuk), 아르빌(Irbil), 술래마니아(Suleimaniyah) 3개 주를 기반으로 하는 쿠르드족은 상당한 자치권을 가지고 독자 세력을 형성하고 있음. 쿠르드 자치정부는 석유법, 키르쿠크 관할권 등 정치·경제 현안에 대해 중앙정부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 쿠르드족은 2005년 12월 총선에서 쿠르드 정당 간 연합을 통해 중요 정치세력으로 자리잡았고, 2006년 출범한 신정부에서 대통령직 및 외무장관직 등을 차지하였으며, 2010년 12월에 출범한 연립정부에서도 대통령직, 외무장관직 등 요직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둠. 쿠르드족은 총 인구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자치권 확대를, 장기적으로는 독립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말리키 정권은 2010년 12월에 신정부를 출범시키는데 성공하였으나, 신정부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수니파의 불만이 표출될 경우 시아파와 수니파의 갈등이 언제든지 재발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

□ 높은 실업률 및 인력 유출 지속

- 실업률은 2003년 전쟁발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정부는 2008년 기준 공식 실업률을 15%로 발표하였으나, 실제로는 30~50%로 추정되어 높은 실업률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또한 1990년대 이후 고급인력이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변국으로 유출되기 시작하였고, 2003년 후세인 정권 붕괴 이후에는 의사의 50%가 유출되는 등 고급 인력 유출이 경제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

3. 국제관계

□ 주변국가 및 서방국가와의 관계 개선

- 2006년 정부 출범 이후 친미 외교노선을 유지하여 지속적 군사·경제 원조를 받고 있으며, 이라크전에 반대했던 프랑스, 러시아, 독일 등과의 외교관계도 개선되고 있음.
- 또한 주변 아랍국과의 관계 개선 및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고, GCC 회원국, 요르단, 시리아, 이란 등과의 관계도 호전되고 있음. 요르단과는 2009년 9월에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음.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외채탕감으로 외채상환부담 감소

- 2004년 11월에 파리클럽은 이라크 채무 420억 달러 중 약 80%인 336억 달러를 3년에 걸쳐 탕감해 주기로 결정하였으며, 쿠웨이트도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80% 탕감안을 확정함.

- 2004년 말 기준 1,200억 달러로 추산되는 외채 중 약 67%가 GCC 국가에 대한 채무(쿠웨이트 284억 달러, 사우디아라비아 250억 달러 등)*이며, 19개의 파리클럽 회원국들에 대한 채무는 약 420억 달러임.

* GCC 국가 채무는 주로 1980~88년 이라크-이란 전쟁시에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등에서 지원받은 것임. 이들은 1979년 이란의 회교혁명 이후 혁명 확산 및 시아파 확대를 우려하여 이라크를 지원하였음.

○ 이라크는 2008년 2월에 러시아와 120억 달러 채무탕감에 합의하였고 2008년 7월에 UAE는 이라크 채무 70억 달러 탕감 계획을 발표하였음. 2010년 2월에는 중국이 85억 달러에 달하는 이라크 채무 중 80%를 탕감하는데 동의하였음.

○ 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채무 탕감에 힘입어 IMF는 이라크의 GDP 대비 총 외채잔액 비율이 종전의 100%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2011년 말에는 약 34%로 급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2010년 2월 IMF, 대기성 차관 36억 달러 승인

○ 2010년 2월에 IMF는 이라크에 대한 대기성 차관 36.4억 달러를 승인하였는데, 이는 정치·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 이라크의 경제발전 및 구조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 이는 경제발전과 개발 프로젝트 투자 확대 등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며, 36.4억 달러 중 현재까지 17억 달러에 대한 지출승인이 완료되었음.

2. 국제시장평가

□ OECD 최저 등급 지속

○ OECD는 1996년 이래 지금까지 이라크에 대한 국가신용등급을 7등급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2011년 3월 평가회의에서도 7등급을 부여하였음.

○ S&P, Moody's, Fitch는 이라크에 국가신용등급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

3. 주요 ECA의 지원태도

- 미국 EXIM: 전액 인수 가능하나,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 네덜란드 Atradius: 인수 불가
- 영국 ECGD: 제한적 인수 가능
- 독일 Hermes: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4.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81년 4월 15일
- 주요협정: 무역경제기술과학협력협정(1983), 항공운수협정(1985), 문화협정(1985), 외교공관 부지교환 협정(1987)
- 이라크는 우리나라의 제6위의 원유도입선으로 2007년 이후 이라크로부터의 원유 수입이 급속히 증가하였음. 2010년 교역규모는 전년 대비 22% 증가한 약 56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수출은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등을 중심으로 약 12억 달러, 수입은 원유(99.5%) 등 약 44억 달러를 기록함.
- 해외직접투자 (2011년 3월말 누계, 총투자 기준): 8건, 197,842천 달러
- 대 이라크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2억 달러로 양국간 교역규모에 비해 미미한 수준임. 주요 투자업종은 석유산업을 포함한 광업(1억 9,560만 달러)으로, 전체의 약 99%를 차지하고 있음.

<표 5> 한-이라크 교역 규모

단위: 백만 달러

	2008	2009	2010	주요품목
수 출	368	785	1,201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등
수 입	4,228	3,812	4,428	원유 등
합 계	4,596	4,597	5,629	-

자료: 한국무역협회.

V. 종합 의견

- 유엔의 오랜 경제제재와 이라크전에 따른 산업기반시설 파괴로 경제는 크게 위축된 상태임. 종전 후에 자유시장 개방경제를 채택한 정부는 경제 재건계획 추진과 고유가 및 원유생산 증가로 인하여 경제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정파·종파간 충돌과 치안 불안의 영향으로 경제성장의 기복이 심함.
- 과거 치안 불안으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 원유 생산에 차질을 빚었음을 고려할 때, 치안 회복이 석유산업을 통한 경제성장 달성의 선결과제임.
- 이라크는 수출을 대부분 원유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쟁 피해로 산업기반이 취약하여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하는 등 취약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음. 그러나 세계 4위의 원유 및 12위의 천연가스 보유국이며, 미탐사 유전지역이 많아 커다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자원부국임.
- 미군과 이라크군이 테러를 진압하면서 2007년 중반 이후 치안 상황이 많이 개선되었음. 그러나 아직까지 빈번히 폭탄 테러가 발생하고 있고 반정부 시위 재발 및 정파·종파간 갈등 표출 위험도 잠재되어 있어 2011년 말 미군의 완전 철수를 앞두고 치안이 악화될 가능성도 상존함.
- 또한 2010년 3월 총선 이후 9개월 간의 국정 공백 끝에 연립정부 구성으로 12월에 신정부가 출범하였으나, 최근 연립정부에 참여했던 주요 인사들이 사임하고 일부 정치그룹이 야당에 합류할 것이라는 소문이 떠도는 등 당분간 정국 불안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책임조사역 박대원 (☎02-3779-5723)

E-mail: parkdw@koreaexim.go.kr